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적응에 관한 연구*

정연숙**

[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등급이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RB의 승인을 거쳐 모집한 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들의 면담 내용은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이동성, 김영천, 2014)의 6단계를 활용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업, 생활, 심리·정서의 3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학업적 측면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적응하기 힘들었던 전공 용어와 전공 공부를 지적하였고, 한자 및 한자어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다음으로 생활 측면에서는 고급 수준의 토픽 등급 소지자인 연구 참여자들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표현과 풍부한 어휘 지식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인 범주에서는 이들이 한국인들과의 대화나 발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 및 일상 생활 문화에 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화용적인 면에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기도 했고 이것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의 다양한 기회 부여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전공 관련 학업 능력 강화, 한국어 숙달도 향상, 학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계획·설계하여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제어: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능력, 학업적응, 고등교육, 내러티브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7750). 또한 이 논문은 2022년 AQIA(아시아질적탐구학회)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한 것임.

** 세종학당재단 샤르자 거점 세종학당 파견 교원, 단독저자, korean.teacher.2012@gmail.com

논문접수 : 2024년 3월 15일, 논문심사 : 2024년 4월 8일, 게재승인 : 2024년 4월 15일



I. 서론

근래의 유학생 증가는 교육부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2014)’,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2012)’ 과 ‘해외 고급 과학자 초빙사업(Brain Pool Program)’,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 사업 등과 같은 국내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여러 사업(서영인; 2012, 임천순; 2015)의 결실로 보인다. 이들 유학생은 Covid-19의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을 뿐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현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2월 21일 개최되었던 ‘글로벌대학 30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에서도 일부 대학이 국내 재학생 수의 감소에 대비하여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학부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며 학위를 받고자 하는 유학생들 즉 ‘한국 내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김정숙, 2000)를 학문적 목적 학습자 혹은 학문 목적 학습자(Korean for Academic Purposes, KAP)라고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에 관한 연구는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의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6년의 논문 1편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학술지 기준)는 ① 유학 정책 및 프로그램, ② 유학 요인에 관한 연구, ③ 유학생 경험에 관한 연구, ④ 유학 이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관련 연구(이상률, 2010; 이천운, 이일용, 2014;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이현주, 이미정, 2019; 김명광, 2021; 이상일, 2023)와 대학 내 조직 구성 및 지원, 유학생을 위한 강의의 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살펴보면 학습을 제공하는 입장 즉 연구자의 관점에서 유학생들을 관찰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본 학업 적응과 생활 이해에 관한 연구가 좀 더 보충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로 200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적응에 관해 실시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주월량·강병현(2022)이 있다. 이 연구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논문 15편, 문화 적응을 주제로 한 논문 31편, 학업 적응 관련 논문 5편, 기타 적응에 관한 논문이 3편이었음을 분석했고,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설문 조사 35편, 질적 연구 13편, 설문 및 면담의 혼합 연구 6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학문 목적 학습자들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관한 연구와 질적 연구의 수행을 통해 양적 연구가 간과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질적 연구로 유학생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의 한국어 역량, 문화 적응 및 스트레스, 교육 적응 및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했다(김도혜, 2019).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혹은 학업 적응을 다룬 연구들(서영주, 2020; 이인혜, 2020; 윤지원, 김상욱, 2017; 황두경, 소려나, 박창언, 2016)은 유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관해 다루었으며,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겪은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대학 적응 실태를 밝히기도 했다(책리하, 박창언, 천단, 2018). 이 외에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입학 전 한국어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류선숙, 2019).

이처럼 일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과정에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와 학업 적응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 외에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점수가 필요하며 입학에 필요한 점수의 기준은 대학과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도 결국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개정 2019)이라는 지침이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해당 지침의 ‘**다. 입학 허가 심사**’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소지자인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TOPIK 2급 소지자의 입학도 허가하고 있지만 대신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유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한 토픽 3급 수준에 관해 토픽 위원회가 제시한 시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의 영위와 대학 수준의 학업 수행은 상당한 간격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경험한 대학 신입생들에 비해 ‘기초적 언어 기능 수행’만이 가능한 유학생들이 입학 이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언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과 생활 적응 중에 겪는 어려움은 결국 다른 국가로의 우회, 중도 포기, 학업이 아닌 졸업을 목표로 학점 채우기와 같은 부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즉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과 졸업 요건 중의 하나인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등급을 완화한 것은 외국인 학생들의 수적인 증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대학 입학 후 학업 수행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간과해 버렸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혹은 4급이 실제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유학생들을 바라보며 설문 조사 위주의 연구를 진행했던 것에 반해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학업 적응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층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어려움을 정리·분석하고자 하였다. 유학생들의 입학을 촉진하기 위해 낮추어 버린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이 그들의 학업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점수가 학업 적응과 생활 적응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 수업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학업 수행에 적절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어 능력 시험(TOPIK)과 학업 능력에 관한 연구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을 최소 3급으로 정해 두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전공의 한국어 비중에 따라 학과별 차등 적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학의 최소 조건인 한국어 능력 시

험(TOPIK) 3급은 일상적이며 간단한 수준의 대화만 가능한 정도이며 생활에 불편함 없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려면 고급 수준인 5급·6급 수준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박수현(2019:44)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사용한 유학생의 입학 및 졸업 결정의 결과가 각 이해당사자 집단에 이롭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는데 실제로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은 대학에서의 전문 지식 습득, 학문적 발표 및 쓰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평가하는 시험에 가깝다.

전은주(2008)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중급과 고급 수준의 쓰기 평가 문항에 내용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고, 고급 문항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읽기 문항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강의 혹은 강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수준인 고급 수준의 듣기 지문으로 한두 문단 정도의 텍스트만 제시되는 점도 한국어 능력 시험의 내용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화(2019)의 연구에서도 쓰기 평가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쓰기 51번 문항의 난이도가 중급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텍스트 유형 범주가 다양하지 못하며 채점 기준 또한 포괄적이며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평가의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조성해(2022)는 듣기 평가를 기준으로 타당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 현행 유학생의 입학의 기준이 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못하기에 좀 더 타당한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의 평가 기준을 참고로 할 때 6급 수준의 학습자는 원어민 화자의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 분야 연구나 업무 수행의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 가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라는 표현의 전제에는 전문 분야 연구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언어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전문 분야의 연구의 내용적인 지식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한국어 능력 시험 3급과 4급으로는 대학에서 전문 분야를 위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 5급 혹은 6급을 통과한 외국인 학습자라면 전공 내용과 관련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연구나 업무 수행 기능에 필요한 한국어는 ‘가능’할 것이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표 1〉 한국어 능력 시험 2 (TOPIK 2) 등급별 평가 기준의 재정리

수준	등급	총점	등급결정	등급별 평가 기준
TOPIK II	3급	300	1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가능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및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 수행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 표현·이해 가능 문단 단위의 표현·이해 가능 문어 및 구어의 기본 특성을 구분·이해·사용 가능
	4급		15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이용,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 수행 가능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일정 수준 수행 가능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 이해 가능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의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사용 가능 자주 사용되는 관용 표현, 대표적인 한국 문화 이해 기반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사용 가능
	5급		1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분야의 연구나 업무 수행 관련 언어 기능의 어느 정도 수행 가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사용 가능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른 언어를 적절히 구분 사용 가능
	6급		23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분야 연구나 업무 수행의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 가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 관련하여 이해·사용 가능 기능 수행 및 의미 표현에의 어려움 없음 원어민 화자의 수준은 아님

출처: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국립국제교육원

2.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

한나·최선진(2022)에서 30개 대학의 내·외국인 교류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글로벌 버디, 버디버디, 멘토링, 국제 학생회’ 등의 이름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및 정착, 학습역량 강화 및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원희·박창남·정현식(2017)은 ‘외국인 유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연구’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

며, 이들을 돕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의 전제조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각’ 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하는 것’ 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임을 강조했다.

이들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식이었지만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우송대, 선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총 7개 대학의 경우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쌍방향적이고 상호문화적인 활동도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박소연, 최은경, 2020; 송나리, 2020; 한나, 최선진, 2022)을 정리한 결과, ‘학업 증진’ 과 ‘적응’ 에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연구자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김지혜(2017)	학업 증진, 대인관계, 문화 교류, 진로 및 취업
이선영·나윤주(2018)	대학적응, 문화적응, 학업 증진, 취업 지원
윤지원·심혜령(2019)	언어 능력 강화, 대인관계 향상, 문화적응, 학업 증진, 취업 지원
민장배·송진영(2020)	의사소통, 학교·문화 적응, 대인관계, 학업 증진
송나리(2020)	학습역량지원, 심리·정서·진로 지원, 취업·직무역량 지원
한나·최선진(2022)	적응 및 정착, 학습역량 강화, 문화체험

한편 송나리(2020)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전공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장상필, 김지일, 2015; 박창남, 정원희, 2017). 비교과 교육 과정은 ‘전공 교과에서 얻을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비교과를 통해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이나 전공 교과와 무관한 프로그램들이 전공 연계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오히려 방해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혹은 ‘학생지원센터’ 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 담당 부서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각 부서의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구조화된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연·최은경(2020)은 국내 주요 대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와 학습 정도를 고려하여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대학 적응, 언어 능력 향상, 문화 적응, 학업 증진, 진로 및 취업과 같은 5개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성호·장경원(2018)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분석하여 이들의

요구를 교과에 대한 요구와 비교과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교과 과정에 관해 유학생들은 ① 전공 영역에서는 해당 전공의 기본 및 기초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의 별도 개설을 요구(21%)했으며, ② 일반교양 영역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을 요구(20.6%)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교과 과정에 대한 요구는 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47.2%), ② 취업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요구(30.6%), ③ 한국어와 영어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22.3%) ④ 동료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과의 튜터링이나 멘토링 프로그램(19.9%), ④ 전공 관련 특강(15.6%) 등의 요구가 있다고 하였다.

유학생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유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대학의 관점에서 기획·실행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유학생들의 전공 교과와 무관한 내용으로 활동과 참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성호·장경원(2018)의 연구에서 보듯 유학생들은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참여 기회의 제공을 필요로 했고, 한편으로 내국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셋째, 내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양방향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학업 적응에 끼친 영향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상황을 더욱 긍정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면서 입학 당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등급 소지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단,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권고에 따라 연구자의 수업 및 상담 등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유학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처음의 연구 계획은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모집하는 것이었으나 이공계열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등급 없이 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기본 참여 요건인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 소지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친 적이 있어도 이 연구에 관심을 둔 자발적인 참여자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TOPIK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모집하고자 했으나 모집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한 학습자들은 모두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을 지닌 학습자들뿐이었다.

또한 학업 적응 과정에서 모국어의 간섭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모국어를 크게 한자문화권 혹은 비한자 문화권으로 나누어 두 부류의 학습자를 비슷한 비율로 모집하고자 했으나 비한자 문화권 학습자들은 본래 모집단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인지 소수의 학생만이 지원해 주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전공과 더불어 국적을 밝힐 경우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해당 참여자를 알아낼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참여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연구결과에는 국적과 나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표 3> 연구대상자 분석

연번	이름	모국어	소속	비고	토픽점수
1	A학생	한자문화권	학부 (교환학생)	인문대학 (국문)	243점 / 6급
2	B학생	한자문화권	학부	경제통상대학 (무역)	215점 / 5급
3	C학생	한자문화권	학부	경제통상대학 (경제)	240점 / 6급
4	D학생	한자문화권	일반대학원	예·체능계열 (디자인)	231점 / 5급
5	E학생	한자문화권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경영)	259점 / 6급
6	F학생	비한자문화권	국제전문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협동과정)	269점 / 6급
7	G학생	비한자문화권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무역)	260점 / 6급

2. 연구 방법

A 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식당, 한국어교육원 등의 게시판 등의 장소에 모집 공고를 올려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다. 면담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였으며 집단 면담, 심층 면담, 반구조화된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회수된 설문 조사지와 면담 녹음 및 전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관한 정보 수집 항목은 ① 면담 내용의 분류 및 추가 연락에 대비한 별

명 혹은 가명, ② 추가 연락 및 쿠폰 발송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③ 연구 내용 분석을 위한 전공, 토픽 점수, 모국어, 성별 및 나이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될 정보는 제외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 조사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분석 과정에서 연구 타당도의 확인에 사용되었다. 이 설문 조사지에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서술형으로 쓰도록 부탁했고, 면담 후 한 달 안에 회수를 요청했다.

면담은 1회당 100분에서 12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Zoom을 활용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집단 면담은 1회, 개별 면담은 2회 이내로 실시했고, 개별 면담 전 진행된 집단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학습자들을 접하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감정, 체험 등을 정리하고 면담자와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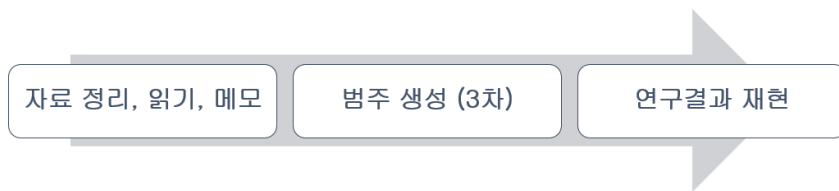
〈표 4〉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의 질문 도구

연번	질문 내용		비고		
1	학업	전공 용어와 한국어 능력 시험의 관계	토픽 고급 수준 어휘와 실제 전공 어휘의 일치성 토픽에 등장하지 않았던 전공 용어의 어려움 전공 학습법에 관한 경험	각주1	
		학교수업(교양 및전공수업 등)과 한국어 능력 시험의 관계	한국어로 수업을 들었을 때 어려웠던 점 학교 수업과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경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각주2	
		한자 및 한자어 역량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토픽 고급 수준의 어휘와 수업 중 활용되는 한자어와의 상관관계 한자에 관한 경험 한자어에 관한 경험	각주2 각주1	
		학업 수행 과정과 영어 구사 능력의 관계		각주2	
		2	한국어와 학교생활	한국 친구들과 하는 팀 활동과 나의 한국어 능력에 관련된 경험	
				토픽 쓰기 점수와 나의 대학 생활의 관계	
		3	토픽	입학 전후의 토픽 점수 변화	
입학 전 토픽 학습 장소					
입학 전 토픽 학습의 매개어와 한국어 학습의 관계					
4	기타	심리적인 문제 및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 각주1. 면담 중 연구자가 추가한 질문

※ 각주2. 면담 중 학습자 발언으로 추가된 질문

자료의 분석은 ‘실용적 질층주의에 기초한 6단계의 포괄적 분석절차’ (이동성, 김영천, 2014)를 응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자료 정리와 읽기, 메모 쓰기 등을 통해 초기 개념을 생성하고, 2차 코딩을 통해 추가로 개념을 추출한 후 초기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3차 코딩에서는 다시 한번 더 개념을 확인하여 추가 추출 혹은 중복된 개념들의 삭제를 반복하고 이 개념들에 근거하여 2차 코딩에서 도출된 초기 범주들을 재구성하여 범주들을 조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가 탐색하고자 했던 주제와 자료들의 의미를 구성해 보았다.



[그림 1] 질적 자료 분석 절차(이동성, 김영천, 2014:8)의 도식화

이 연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기록한 내용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발언 내용에 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면담 이후에도 SNS나 이메일 등의 개별연락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둘째, 설문지 작성, 산출 자료의 확인, 코딩을 통한 범주 생성과 해석 등의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 학위 이상의 연구자 2인의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 삼각 검증(triangulation)을 위해 자료 수집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삼각 검증의 자료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전사 및 분석 자료, 연구 참여자가 서술한 설문지, 선행 연구 및 외국인의 한국 적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IRB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산출물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로 면담 참여자 7명의 이야기를 크게 학업, 생활, 심리·정서의 3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Ⅲ. 연구결과

1.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준 요인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어 능력 시험 5급과 6급을 통과하였지만 전공 학습, 한자 및 한자어, 수업 중 사용되는 영어, 학문적 언어 사용 능력 및 학업 관련 배경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토픽 고급 수준이라도 적용하기 힘들었던 전공

“교과서에서 고유어를 많이 봤을 때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서 그 의미를 추측할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픽은 6급인데 단어를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토픽은 뭔가 일상 생활(=대학 생활)에서 쓰는 한국어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A 학생, 집단면담)

“가끔은 이제 우리가 석사 과정인데 이제 조금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한국인 쌤들도 같이 있으면 그 쌤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욱 힘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G 학생, 집단면담)

유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어 고유어 및 전문용어가 다수인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픽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C 학생, 집단면담).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급 수준의 토픽 등급을 받았지만, 전공 용어에 익숙하지 못했고,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했으며, 대학 수준의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었다.

<표 5>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과 학업 적응

토픽 고급 수준이라도 적용하기 힘들었던 전공	생소했던 전공 용어	5급이었지만 토픽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공 용어를 몰라 힘들었음(B 학생)
		토픽에서 배운 단어와 전문용어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공부하는 시간도 원어민보다는 많이 걸림(G 학생)
	부족한 한국어 표현 능력	수업에서의 어휘, 문장 모두 어려웠고 한국어 분반의 과제와 시험을 한국어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걱정됨(B 학생)
		교양 수업은 괜찮지만 전공 수업은 한국어 쓰기 능력이 필요해서인지 점수가 좋지 않아 괴로움(C 학생)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이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많이 배워서 딴 것이라서 주위 친구들도 (자신이)어떻게 6급을 받았는지 궁금해 함(C 학생)
토픽 고급과 현실과의 격차		비한자 문화권이던 모국에서 배운 한국어학과의 수준과 교환학생으로 와서 경험한 국문학과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음(G 학생)
		토픽 6급을 받았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이해하기가 힘들. 특히 교수님보다 학생들 발표 내용 이해가 안 됨(A 학생)

2) 한자 및 한자어

“내가 아무리 토픽 6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주로 한자가, 한자 말들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국제, 국제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교수님이 한자로 되어 있는 자료 그냥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충격이었고 그래서 한자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F 학생, 비한자 문화권)

비한자 문화권 출신인 F 학생은 국제학 전공으로 역사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다. 모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덕분에 한자 공부를 했으나 이 학습자가 받은 8급 및 7급 수준의 한자로는 수업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대학 수준의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의 한자 검정 시험 기준 중 8급의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일상적인 한자어가 사용된 국한 혼용의 문장을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자 능력 수준” 이다.

반면 한자 문화권 학생들 중 특히 E 학생, C 학생 등은 한국 한자어로부터 어려움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예를 들어 E 학생(한자 문화권)은 석사 논문의 주제가 ‘상법’ 이었고 관련 내용에 한자어가 많아 (논문을) 쓰기가 오히려 더 편했다고 했다.

“제 생각에 상법 같은 과목은 약간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약간 법에 관련한 과목 중에 대부분 쓰는 한국어이라도 약간 한자 알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잖아요. 약간 똑같은 뜻이니까 대신에 다른 언어 한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B 학생, 집단면담)

<표 6> 한자어와 학업 적용

한자 및 한자어에 큰 어려움을 느낌	학업에서 한자/한자어의 영향	법 관련 수업의 경우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서 멘붕이 음(F 학생)
		학부 때 한자어가 들어간 수업이 가장 어려움. 한자어를 모르면 수업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임(G 학생)
	해결 방법	수업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한자가 아닌 다른 자료로 공부를 함

	(F 학생)
	한자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문자(한글)로 다시 공부함(C 학생)

문정현(2020)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 입학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수준은 학부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언어 수준이다. 게다가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토픽 5급 혹은 6급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인들은 15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소논문은 외국인인 자신은 2시간에 걸쳐 읽고 있는 상황(G 학생)이나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국 친구들은 이미 문제를 다 풀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문제 이해에 힘을 쏟고 있었던 상황(C 학생, E 학생)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었다.

3) 수업 중 교수님이 사용했던 영어

이 연구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으나 유학생들이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다. 일부 유학생들은 수업 중 교수님이나 한국인 학우들이 사용하는 영어 발음이 자신이 알고 있던 발음과 달라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대학 수업을 통해 배우는 지식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고 유학을 통해 학위를 습득한 교수님들이 영어로 된 학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국어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E 학생, 개별 면담). 유학생들은 이것을 영어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확인해 본 결과, 한국어 외래어인 경우가 상당수였다. F 학생의 경우 영어 분반도 아닌데 한국어 분반의 수업 자료가 모두 영어로 제공된 적이 있었고,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석한 후 다시 외국어인 한국어로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경험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학생들의 모국어도 영어가 아니고, 한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만 하고 입학했는데 수업 내용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유학생들의 학업 부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7> 영어 및 외래어와 학업 적응

영어로 인한 어려움	영어의 실제 발음과 교실에서의 발음 차이	영어로 구성된 수업이나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힘들었는데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자신이 알고 있던 발음과 달라 이해하기 힘들(E 학생)
	한국어 수업도 영어자료로 진행됨	한국어 분반의 수업도 자료도 모두 영어로 제공되어 한국어로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 어려웠음(F 학생)

4) 학문적 언어 사용 능력 부족

이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모두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한국어 실력으로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논문을 쓰거나 표준 발음에서 벗어난 발음 즉 지역어를 쓰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F 학생). 석사 논문을 쓸 때 번역기를 사용해서 쓰고 한국 친구가 수정을 도와서 겨우 졸업한 사례도 있었다(D 학생).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비교과 활동에 등록했으나 결국 언어적 한계로 적극적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학생도 있었다(C 학생). 최근 학과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교수님들은 개강 첫 수업 때 외국인 학생들의 토픽 등급을 확인하여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G 학생).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수업의 질 확보이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 때문에 수업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다면 모국인 학습자들은 물론 대학 수업의 질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학문적 언어 사용 능력과 학업 적응

학문적 언어 사용능력 부족	문어적 맥락의 쓰기 능력의 부족	한국어로 논문을 쓰면 항상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해야 해서 영어로 논문을 쓰기로 결정함(E 학생)
		학교 수업이나 시험 때, 일상생활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 문장이 유치해지는 것 같음(A 학생)
	공식적인 말하기 능력의 부족	쓰기 부분이 되지 않아 지도교수에게 전문적인 내용의 쓰기 연습에 대한 연습을 하라는 요구를 받음(G 학생)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언어사용은 아직도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받음(D 학생)

5) 학업과 관련된 배경 지식 부족

한국어 수준도 유학 생활 적응에 큰 변수가 되었지만 유학 전의 학습자가 경험하고

습득하였던 전공 관련 지식의 수준도 대학 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의 모 학과에 진학했다가 자퇴하여 상경계열로 다시 재진입한 학생의 경우 공대의 필수 과목인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학사 경고를 받았고 이후 자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모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온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해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교과 내용에 미숙할 경우 학교 생활 적응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전공 선행지식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학업 관련 지식 부족과 학업 적응

학업 관련 지식 부족	수업 내용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음	전공 과목과 달리 전공 외 과목은 모국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힘들었음 (A 학생)
		모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수업은 괜찮지만 생소한 내용(다른 나라 역사 등)은 이해 못 함(C 학생)

2.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준 요인들

생활 측면에서는 고급 수준의 토픽 등급이라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용적 표현과 풍부한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생활 적응 관련 애로 사항과 학업을 수행하는 중에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부분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생활 적응과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것은 또 한국어 향상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한국어 능력 부족

유학생으로서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어 능력 부족으로 학사 행정의 처리와 비교과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들과 동일한 국적의 룸메이트나 자신의 모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B 학생). 버디 혹은 튜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기보다 함께 놀러 가거나 교내 활동 신청을 하는 등의 소소한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덜어 주었고(A 학생, G 학생), 한국인 학생이 불성실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B 학생, C 학생).

<표 10> 한국어 능력 부족과 실생활 적응

한국어 능력 부족	실생활과 토픽 급수의 괴리	6급이지만 한국에 오니 어휘력 같은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음 (A 학생)
		토픽 시험 등급과 실제 언어 능력은 다른 것 같음. (B 학생)
		토픽 6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지만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E 학생)
	토픽 점수와 언어구사의 정확성 간의 차이	문법과 단어는 괜찮으나 한국어 말하기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고민임(E 학생) 자신이 번역한 문장을 교수님이 이해하지 못 할 때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듦(E 학생)

2) 학내 인간 관계

교내에서 수업을 듣거나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일부 유학생들은 실용적 표현과 풍부한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거나(A 학생) 다양하고 많은 단어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G 학생). 입학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토픽보다 실용적인 표현을 익히는 데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C 학생) 한국어 문법과 단어를 좀 더 공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D 학생). 한국어가 서툴러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모르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최대한 눈치를 잘 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유학생도 있었다(G 학생).

<표 11> 학내 구성원들의 관계와 실생활 적응

학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학내 구성원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팀플을 할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지 않거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도 실수를 할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실수하면 도와주지 않기도 해서 속상했음(G 학생)
		교수님들이 유학생인 자신에게 보여주는 불친절이나 무관심이 더 힘들(B 학생)

이처럼 한국어 어휘와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3.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준 요인들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은 첫째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둘째 한국의 문화와 언어 표현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1)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

유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구실이나 교실에서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중에도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생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대면 수업이 겁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C 학생).

<표 12> 한국어에 관한 자신감 부족

한국어에 관한 자신감 부족	스트레스를 받거나 침묵을 지킴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이해 못 하거나 표현을 못 하는 것이 매번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받음(E 학생, D 학생)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실 식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표현을 하지 못해 듣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D 학생)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부끄럽기 때문에 교수님께 쪽지를 보내거나 질문을 하지 못함(C 학생)
		한국어 발음과 표현 오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인 친구, 교수님에게 전화하는 것이 제일 무서웠던 적이 있음(E 학생)

2) 한국 문화와 표현의 차이

유학생들 중에서는 언어사용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어의 경어 사용에 미숙해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표 13> 한국문화와 표현의 차이

한국문화와 표현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한국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생활 문화 및 예절의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음(E 학생)
	언어 표현의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표현이 힘들. 한국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국과 다르게 예의 있는 표현을 써야 해서 힘들(B 학생)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토픽 고급 수준인 5급과 6급을 통과한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업 수행과 생활 적응 및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공 지식의 부족으로 전공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힘들었다. 둘째 일반 목적 한국어 중심의 토픽 고급 수준으로는 학업에 필요한 발표, 시험, 과제 쓰기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고급 수준의 토픽을 공부했을 때에 접하지 못했던 한자 및 한자어가 전공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내용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다. 넷째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할 한국인 및 외국인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토픽 고급 수준을 통과했지만 한국인들과의 대화에 있어 주제나 사회·문화적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어 표현 오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시간을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기도 하였다. 여섯째 한국의 일상 문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한국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실패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4. 학업 적응을 위한 요구 및 해결 방안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한국어 지원과 전공 학습 지원을 요구했다. 우선 유학생들이 필요로 한 한국어 지원으로는 학업에 유용한 한국어 표현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지해 줄 주변인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고등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자신이 배웠던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전공 수업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 줄 필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표 14> 학업 관련 어려움의 해결에 대한 유학생들의 요구

한국어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과 기능 학습의 필요성	학문 목적 쓰기의 형식에 관한 학습이 필요	보고서 쓰기, 상사들에게 이메일 보내기와 같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한국어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싶음(G 학생)
		학문 목적 쓰기 학습의 페이스 메이커 필요	토론글을 올려야 하는 수업이 다른 한국 학생들의 글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A 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한국어를 지도해 줄만한 교수나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D 학생)
			좋은 한국인 친구가 발표나 서류를 검토해 주어서 감사함(E 학생)

전공	입학 전 전공 예비반을 개설해 주었으면 함.	전공 내용의 이해 부족과	한국어 실력도 문제이지만 전공 지식 자체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서술형 시험도 치기 힘들(C 학생)
		표현 능력 부족	전공과 관계된 논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용의 이해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음(E 학생)
		전공 선행 지식 학습	전공이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모아 전공 공부를 보충해 주면 좋겠음(C 학생).
		과정의 제공이 필요	전공 과정 입학 전에 파운데이션 스터디(전공 기본 지식 학습 단계)가 필요함(B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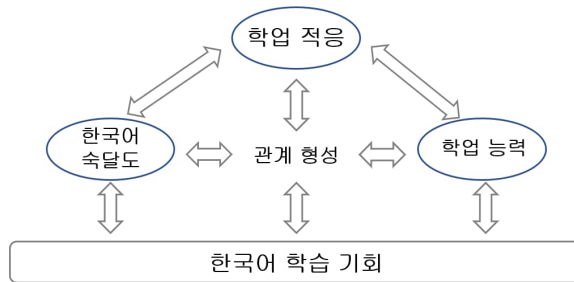
일부 유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전공 지식의 부재가 더 문제이며,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반보다 전공 학습을 돕는 한국어 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 학생, C 학생).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는 약하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던 것처럼(박진욱, 박은영, 2016) 이 연구도 토픽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토픽이 학업 적응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는 학업 역량과 생활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면담 당시 그들은 학업 적응 역량을 기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 설계가 요구되며 이 부분은 전공 과목과 연관된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과 혹은 비교과 과목의 마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외국인 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과 외국 문화에 대한 공감 교육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한국어 능력이었으나 TOPIK 등급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과 생활 적응, 대인 관계 스트레스를 초래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업 부적응이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유학생들이 ‘학업 적응’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 기회’가 필요하고, 한국어 학습 기회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도’ 향상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학업 능력’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한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능력’의 증가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새로운 도움이 되며 동시에 주변인들과의 ‘관계 형성’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풍부한

한국어 학습의 기회는 이들의 한국어 숙달도 향상과 관계 형성 및 학업 능력에 도움을 주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촉진제 역할을 하여 한국어 능력을 거듭 강화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기에 이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2]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촉진하는 요소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등급이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RB의 승인을 거쳐 모집한 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들의 면담 내용은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이동성, 김영천, 2014)의 6단계를 활용해 3차 코딩을 거쳤다. 그 결과 이들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 생활, 심리·정서의 3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학업적 측면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첫째 적응하기 힘들었던 전공 용어와 전공 공부를 지적하였고, 한자 및 한자어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들은 전공 선행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과 한자 및 한자어에 관한 어휘 지식에 관한 학습 기회도 제공 받고 싶어했다. 둘째 생활 측면에서 고급 수준의 토픽 등급 소지자인 연구참여자들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표현과 풍부한 어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 토픽 고급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때 오류가 생길까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대화에 진입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및 일상생활문화에 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화용적인 면에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과 오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의 기

회 부여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 강화, 한국어 숙달도 향상, 학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들의 학업 적응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 준비 프로그램이나 전공 보충 수업에 관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이는 유학생들의 학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단과대별로 개설해야 하며, 각 단과대의 공통 지식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급 수준의 한자 및 한자어를 익힐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문 목적 한국어 역량 개발을 위한 비교과는 유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 표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학내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한국어 사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교내 지원 센터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적응에 관해 탐색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양적 분석을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 연구 수행 당시 지역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장 관계자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관해 이해한 바를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한 비교과 수업 및 교과과정 설계에 관한 질적 요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TOPIK 점수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학과가 있었기에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 범위가 넓지 못한 점, 다양한 토픽 급수의 학생들을 섭외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이공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의·생명 계열의 유학생들이 학업 적응 과정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방안을 제시할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m=020602&s=moe&page=102&boardID=339&boardSeq=52802&lev=0&opType=N>
- 교육부. (201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https://www.moe.go.kr/boardCnts/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7521>
- 김대현, 강이화(1999). 교사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과 성적의 의미-자서전적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7(1), 351-371.
- 김대현, 김현주(2003). 입학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 김도혜(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 김명광(2021). COVID-19 와 유학생 유치 정책에 대한 일고. **현대사회와다문화**, 11(2), 35-67.
- 김지혜(2017).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2), 537-562.
-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4), 311-337.
- 류선숙(2019).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입학 전 한국어 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교양교육연구**, 13(6), 245-270.
- 문정현(2022).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글쓰기 비교과 프로그램 실제: P 대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1749-1764.
- 민장배, 송진영(2020).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호동료튜터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S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2), 865-885.
-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3), 169-200.
- 박소연, 최은경(20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D 대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4), 381-405.
- 박수현(2019). 한국어능력시험의 학문 목적 사용에 관한 타당화-평가사용논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0(3), 21-49.
- 박진욱, 박은영(2016).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532-540.
- 사키야 미호, 야나세 히로이치(2018). **대학의 위기, 뒤집어 보면 기회다**. (김대식 감역). 초판,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서영인(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RR2012-15). **[KEDI] 연구보고서**, 1-390.

- 서영주(2020).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생활경험 내러티브 탐구: 부산 A 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35-58.
- 송나리(2020). **대학의 비교과교육과정 개발·운영모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학술논문
- 윤지원, 김상욱(2017).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2), 29-56.
- 윤지원, 심혜령(2019).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호동료튜터링 프로그램 연구-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3, 101-124.
- 이동성, 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이미혜(2018).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의 어휘· 문법 능력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문법 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2), 71-77.
- 이상률(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어문화교육**, 4(1), 195-218.
- 이상일(2023).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통시적 고찰. **문화와융합**, 45(9), 501-513.
- 이상화(2019). **쓰기 평가 문항의 타당도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기출 문항을 대상으로** -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선영, 나운주(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 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167-193.
- 이인혜(2020).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혼합 연구. **한국어 교육**, 31(4), 276-309.
- 이천운, 이일용(2014).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중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1), 31-52.
- 이현주, 이미정(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10(4), 235-25
- 임천순(2015).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제고 및 지원조직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부. 1-163.
- 장상필, 김지일(2015). 비교과 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증진 방안 연구: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인문학적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3(4), 135-156.
- 전은주(2008).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 의 비판적 검토;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문항의 내용타당도 분석-제 12 회 일반 한국어 (S-TOPIK) 의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1, 129-165.
- 정원희, 박창남, 정현식(2017). 외국인 유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1), 531-537.
- 조성해(2022). 유학생의 한국어 듣기 평가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 타당도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4, 149-177.
- 주월랑, 강병현(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한국어능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3(1), 231-246.
- 책리하, 박창언, 천단(2018). 한국어 실력이 왕초보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 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3), 157-175.
- 최성호, 장경원(2018).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615-639.
-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 **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excel 자료).
- 한나, 최선진(2022). 온라인 기반 내·외국인 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효과성 연구. **언어와 문화**, 18(4), 267-287.
- 홍영숙(2019).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 가정 자녀의 언어 중개 (Language Brokering) 경험 탐구: 부모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703-725.
- 황두경, 소려나, 박장언(2016). 학사경고를 받은 공과계열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4(3), 53-73.
- 황석현, 김석우(2019). 학사경고 대학생들을 위한 학업증진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8(1), 131-147.

Kevin Carey. (2016). **대학의 미래**. (공지민, 옮김). 서울: 지식의 날개. (원서출판 2015).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TOPIK 한국어능력시험 www.topik.go.kr/

[Abstract]

The narrative inquiry on Korean Language Learners' Korean proficiency and Academic adjustment in College Life

Cheong Yeun Sook (Korean teacher, King Sejong Institute Sharjah)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cores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mong foreign exchange students on academic adaptation. Recruited student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otaled seven, and their interview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a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 based on pragmatic eclecticism (Lee, Kim, 2014), utilizing six stages. As a result,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daptation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academic, daily life, and psychological-emotional aspects.

On the academic front, interviewees pointed out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pecialized terminology and studying in their majors, as well as experiencing significant challenges with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Next, from a daily life perspective, even participants holding advanced TOPIK scores faced difficulties in adapting to university lif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practical expressions and extensive vocabulary for proper adjustment to Korean life. Lastly, within the psychological-emotional dimension, despite being advanced TOPIK holders, they were found to experience considerable stress in conversations or presentations with Koreans. Their lack of knowledge in social-cultural and everyday life culture also led to linguistic errors and contributed to psychological-emotional difficulties, despite proficiency in Korean.

Based on these narratives, 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academic adaptation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t is essential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With this goal in mind,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enhancing learners' academic proficiency in their majors, improving Korean language fluency, and foster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Furthermore, the researchers suggested as a solution to implement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tailored for foreign learners.

Key words: Korean learner for Academic Purpose, Korean proficiency, academic adjustment, higher education, narrativ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B5A17057750).
- ※ This paper is a substantial revision of the presentation abstract presented at the 2022 Asia Qualitative Inquiry Association (AQIA) conference.